

21세기를 대비하여 제2창학을 선언한 숙명여자대학교

이 경 숙
숙명여대 총장



1.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힘으로 일으킨' 대학

숙명여자대학교는 올해 창학 90년을 맞는다. 1906년 이 땅의 여성을 우리 힘으로 교육하겠다는 고종 황실의 뜻에 따라 설립된 숙명학원은 오는 2006년에 뜻깊은 민족 여성 고등교육 1세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에만 머물던 한국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대화를 앞당기겠다는 민족 선각자들의 의지가 숙명 태동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90년 전 용동궁(지금의 수송동)에 학교터를

정하고 11세~26세 사이의 명문가 자녀 5명을 최초의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문을 연 숙명은 민족의 수난과 애환을 함께 해오면서 한국 여성의 위상을 오늘에 이르게 한 배움의 요람으로 창학이 지닌 소명 의식을 의연하게 실현해 왔다.

숙명의 창학을 가리켜 최남선 선생은 일찍이 명저 『조선역사강화』에서 “5월에 숙명여학교 설립되니, 우리 힘으로 되는 여성 교육기관의 효시”라고 하였다.

본교의 전신인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설립된 1938년은 일제의 강점 아래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운이 나라 안에 짙게 깔려 있던 절박한 시기였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구국과 애족을 염원하던 지성인들은 전통 사회의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거국적인 '숙명여전 설립 모금운동'으로 이어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힘을 보태기에 이르렀다.

숙명여전은 황실이 제공한 막대한 재원과 교지 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지식인 모금운동에 힘입어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설립 자체가 민족지성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될 만큼 감격적인 출범으로 그 배움터를 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탄생한 숙명여전은 민족의 정통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국 여성 엘리트가 운집하여 향학열을 불태웠고, 그 후 점차 교세를 더하여 국내 최고의 여성 명문 사학으로 발전해 왔다.

'숙명'이라는 교명은 숙정명지(淑貞明智)의 줄인 말로 정숙한 부덕과 현명한 지성을 갖춘 동양적 여성상의 총체적 완성을 의미한다. 숙명 교표는 바로 창립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은백색 눈의 결정체인 설화문(雪花紋)의 교표가 상징하는 차갑고 총명한 지성과 진리への 열정은 바로 우리 숙명 1백년사를 면면히 흘러온 지조 높은 숙명인의 품성이며, 90년 성상을 두고 가다듬어 온 숙명의 교육이념인 것이다.

숙명여대의 창립이념은 정숙, 현명, 정대를 지향하는 여성 교육과 민족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민족 교육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인간 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청하는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민족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숙명여대의 참된 교육목적이다.

2.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숙명여전에 이어 1948년 개교한 숙명여자대학은 당시 문학부, 이학부 2부에 6개 학과 880명 정원의 규모였다. 숙명여자대학의 탄생



▲ 숙명여자대학교는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될 21세기를 바라보며, 민족의 얼과 혼을 지닌 차세대 여성 엘리트를 육성하여 전통의 민족사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제2창학의 기치를 든다. (사진은 숙명여대 재학생의 모습을 상징한 본관 앞 등상)

은 일제하에서 식민지교육의 일환으로 강요되었던 학제와 교과과정의 잔재를 벗어나 한국적인 교육체제로 일신하는 교육제도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는 온 나라 여성과 사회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단과대학과 대학원과정을 구비한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 개교와 더불어 거교적인 준비에 들어 갔던 숙명여자대학은 6·25로 피폐해진 사회여건 속에서 학교 발전계획을 전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학부 첫 졸업식을 부산 피난지에서 거행해야 했던 숙명여대는 환도후 지금의 청파동 교지에 교사를 증축하고 비로소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1912년 경선궁과 영친왕이 제공했던 황해도 염전과 안악, 재령, 은률, 신천 등지의 풍부한 재원을 분단으로 모조리 상실하였으나, 우리 대학은 전 숙명인의 단결로 혹독한 재정적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1955년 3월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

문리과대학, 정경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설치한 숙명여자대학교는 전후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계, 교육계, 산업계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과과정 대개편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여성 지도자 산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3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고, 1969년에는 가정대학, 1973년에는 산업미술대학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단과대학과 대학원 증설에 발맞추어 본교는 교지 확장의 필요에 따라 인접 효창국민학교를 매입하여 과학관과 도서관을 잇달아 신축하였고, 1984년에는 경기도 용인에 14만 평의 새 교지를 매입하여 약초원, 연수원 등 면학에 부수되는 실습장과 대규모 대학 부설 수련장을 준공하였다.

이러한 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국내·외 명문 대학에서 뛰어난 석학들을 속속 영입하여 교수진을 확충하고 학생을 계속 증원하여 숙명여자대학교는 이제 8개 단과대학, 39개 학과에 9천여 명의 재학생이 수학과 있으며, 6개 대학원에 12개 부속·부설기관과 20개 학내 연구소를 운영하는 대규모 종합대학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지금까지 숙명이 배출한 졸업생은 4만 3천여 명으로 학계와 교육계, 산업계 일선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21세기에 대비한 제2창학 선언

숙명여자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의 제1목표로 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향해 치닫고 있다. 21세기는 한국 여성에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도 여성의 사회 활동이 기대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교는 다가올 여성 전문직 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졸업생으로 하여금 전문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확충하였다.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회복하고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발전 속도를 뒤처짐 없이 따라 잡아야 하며, 교육 장비의 첨단화와 더불어 고급 인력의 확보가 선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날 선구적 민족 명문 사학의 전통을 이어 더욱 향상된 여건에서 21세기의 통일 국가 시대를 대비한 여성 고등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원년인 1995년도에 숙명인 모두의 염원이었던 발전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창학 90년을 맞는 숙명은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격랑의 시대를 더불어 살아오면서 여성이 감내해야 할 인종과 희생의 여성적 덕성을 한국적 여성 지식인의 모습으로 승화시킨 귀중한 전통을 닦아 왔다. 이제 어제의 혼란과 수난을 뒤로 한국 여성이 이룩해야 할 세계 속의 여성상을 창출하는 몫은 당연히 우리 숙명의 것이다.

본교는 1995년 2월 22일 세계 속의 한국 여성상 정립을 위한 제2창학을 선언하였다. 지금 우리 대학들은 1세기 대학사에 일찍이 없었던 대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1996년 교육 개방이라는 돌풍을 만난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가 곧 불어닥칠 거센 시련을 예상하며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대학은 세계 속에 한국 지성을 듬뿍 과시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승승장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 숙명여대는 2006년에 맞게 될 창학

100주년 이전에 국제 교육 개방을 전환점으로 한 실질적인 제2창학 준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학술 교류에 주력하여 미국,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등지의 명문대학들과 교수·학생 교환 등 상호 학술 교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종합병원들과 공동 연구 체계를 수립하여 연구와 실습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지난 90년 동안의 금남 지역 빗장을 열어 전문대학원에 한하여 남녀 공학으로 문호를 활짝 열었고, 외국인 교수를 대폭 증강하여 재학생 회화를 전담할 현직인 교수를 매학기 선발하고 있다.

셋째, 오는 2006년까지 교육 시설 첨단화를 이루기 위해 인근 효창공원 일부를 매입하여 B캠퍼스로 조성하였으며, 이 곳에 전산원과 음악당을 포함한 14동의 실습실과 교사를 증축한다.

숙명 장기 발전계획을 전담하여 시행할 장기 발전계획위원회는 교과과정의 국제화,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첨단 학과 신설, 학내 조직 개편, 교지 확장 등의 10개년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이미 1차년도 사업을 달성하였다.

대학 자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제와 학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 첨단학과로 정보방송학과가 신설되었고, 환경과 학과와 광고기획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일본과 러시아 등의 지역연구 학과를 비롯한 어학분야 학과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임상약학대학원과 의약 정보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국내·외 의약 연구와 정보의 산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제 개편과 맞물려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행정 부서 개편도 단행하였다. 행정 전산망을 통한 서비스 개발과 행정 요원의 해외 연수 등으로 선진적 교

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학실습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국민학교 학생 및 어머니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개방하여 박물관 학습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와 교양강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4. 전 졸업생을 전문분야 일인자로

숙명은 이제 창학 100년의 전통으로 21세기

▼ 숙명여대 재학생들이 5월 창학 기념 축제에서 환호하는 모습



를 준비하고 있다.

전교생을 숙명 입학과 동시에 어학과 컴퓨터의 단계적 훈련에 참가시키고, 각 학문 분야에 관계 없이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신입생과 우수한 재학생에게는 재학중 일정 기간을 해외 자매대학에서 짜임새 있는 현지 교육을 받도록 대학당국이 적극적인 장학 지원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졸업생이 외국 유명대학에 진학할 경우, 특별 장학지원을 받게 하고 있다. 또 국내 산업체와의 공동 학술연구시스템을 마련하고 긴밀한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재학생들이 산업체에 진출하기 전에 산 경협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본교의 교육 지표 첫 단계는 사회진출을 원하는 졸업생의 사회 진출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육구는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교는 매년

그 해에 배출된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악해 놓고 있다. 매년 가을, 전 학내 부서가 총동원되다시피하는 이 취업현황 집계는 해당학과 교수에게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 각 학과 교수들은 매년 자신들이 직접 가르쳐 내보낸 졸업생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진출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는다. 숙명여대는 재학생으로 몸담았던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진출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정성과 관심을 집중하는 대학이다.

1995년 2월 대학 문을 나선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 중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확인된 사람은 전체의 73.6%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대학 중의 하나로 자랑스럽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좀 더 많은 졸업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으로 빛나는 전통에 손색이 없는 여성 전문인의 요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